

2016년 기상청 7급 한국사 해설 A형

문 1.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은 장사를 지낼 적에 큰 나무 꽈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丈)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겨우 형체가 보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꽈 속에 안치한다. 온 집안 식구를 모두 하나의 꽈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모양을 새긴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소금과 어물 등을 고구려에 공물로 바쳤다.
- ②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 ③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었다.
- ④ 철을 많이 생산하여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1. 정답 : 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후에 뼈를 추려서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는 골장제는 옥저의 장례풍습이다.

- ①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지만, 고구려에 소금·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 ② 동예는 누에를 이용하여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豬加)·구가(狗加)라는 군장 세력이 있었다.
- ④ 삼한의 변한 지역은 철을 생산하여 낙랑·일본 등지에 수출하였으며,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문 2. 다음 제시된 각 국왕대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이왕 •신라 내물왕

- ① 왕위의 부자 세습제를 확립하였다.
- ②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③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을 통합하였다.
- ④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정답 : ④

④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중심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삼국이 처음부터 일정한 국가 체제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장 국가에서 연맹 왕국으로, 다시 중앙 집권 국가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장,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때,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신라는 4세기 내물왕 때 비로소 중앙 집권 국가의 토

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① 왕위 부자 세습은 고구려 고국천왕, 백제 근초고왕, 신라 놀지왕 대 확립되었다.
- ②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고이왕, 신라 법흥왕 대 삼국의 율령이 반포되었다.
- ③ 삼국의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침류왕, 신라 법흥왕 대 공인되었다.

문 3. 밑줄 친 (가)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은/는 노비를 안검하여 시비를 살펴 분명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해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크게 행해지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왕비가 간절히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다.

- 고려사절요 -

< 보 기 >

- ㄱ. 훈요십조를 남겼다.
- ㄴ.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ㄷ. 과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 ㄹ.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3.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최승로의 「오조정격평」 중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광종에 대한 평가이다.

- ㄴ. 광종은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식 관복제를 바탕으로 자·단·비·녹색의 4공복제를 제정하였다.
- ㄷ. 광종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관리를 과거를 통해 등용함으로써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 ㄱ. 태조는 박술희를 통해 후손에게 내린 가르침으로,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 ㄹ.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국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 목적에서 연등회를 축소시키고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문 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서너 명의 총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근심하여 다라니(陀羅尼) 은어를 지어 길 위에 던져두었다.
- 다라니는 이렇다. “나무망국 칠니나제 판니판니 소판니 우우삼아간 부이사바하(南無亡國刹尼那帝判尼判尼蘇判尼于于三阿干鳧伊娑婆訶).” 풀이하는 이가 말하기를 “칠니나제(刹尼那帝)는 여왕을 말하고 판니판니(判尼判尼蘇判尼)는 두 소판을 말한 것이니, 소판은 관작(官爵)의 이름이요, 우우삼아간(于于三阿干)은 서너 명의 총신을 말한 것이며, 부이(鳧伊)는 부호(鳧好)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삼국유사 -

- 이때 이름 없는 자가 당시의 정치를 비방하는 글을 지어 조정의 길목에 내걸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자를 찾도록 했으나 잡지 못했다. 어떤 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분명 뜻을 이루지 못한 문인의 행위일 것입니다. 아마대야주의 은자거인(巨仁)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거인을 잡아 도성의 감옥에 가두게 하고 장차 처형하려 하였다. 거인이 분하고 원통해 감옥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우공(于公)이 통곡하자 3년간 가물었고, 추연(鄒衍)이 슬픔을 품으니 5월에 서리가 내렸는데 지금 나의 근심을 돌이켜보면 옛날과 비슷하건만 황천은 말이 없고 단지 푸르기만 하구나.” 그날 저녁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덮이고 벼락이 내리 치면서 우박이 쏟아졌다. 왕이 두려워 거인을 풀어주고 돌려보냈다.

- 삼국사기 -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韓國史

- ① 인평(仁平)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태평송을 지어 당의 황제에게 바쳤다.
- ③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④ 궁예가 북원과 명주를 습격하였다.

4.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신라 하대 진성여왕(887~897) 시기의 내용이다. 신라 제51대 왕인 진성여왕은 기록에 따르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간신배를 가까이 하여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었으므로 국가재정을 좀먹었으며 또 뇌물이 성행하고 관리의 등용이 공정치 못하여 정치가 극도로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④ 신라 하대 정치적 혼란을 틈타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 세력들 중 궁예는 892년 북원,

894년 명주를 습격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① 인평(仁平)은 선덕여왕의 연호이다.

② 진덕여왕은 648년 나당 동맹을 체결한 뒤 650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백제군을 물리친 사실을 보고하고 직접 지은 태평송을 비단에 새겨 당 고종에게 바쳤다.

③ 선덕 여왕 말기 상대등 비담과 염종 등 진골 귀족에 의한 난이 일어났고, 김유신이 이를 진압하였다.

문 5. 조선 전기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종 때 반포한 경국대전에 관료 체제가 명시되어 있다.

- ② 지방에 파견된 관찰사는 원칙상 1년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 ③ 유향소는 향풍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기 위해 예종 때 설치되었다.
- ④ 경재소는 서울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하던 곳으로 각 지방 출신 중앙 관리로 구성되었다.

5. 정답 : ③

- ③ 유향소는 조선 초기에 향리를 규찰하고 지방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들이 조직한 기구로, 여말선초 고려의 사심관제를 모방해 지방의 유력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①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으로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년)까지 약 100년 간의 왕명·조례(條例)·교지(敎旨) 등을 수집하여 엮은 법전이다. 이 중 이전(吏典)은 내명부와 외명부, 중앙과 지방의 관계, 관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록하고 있다.
 - ② 조선의 관찰사는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으로 1년의 임기를 설정하여 한 지역에서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 ④ 경재소는 중앙 관직에 오른 현직 관료에게 자기 출신 지역의 유향소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제도로, 수도에 설치되었으며 자기 출신지의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기능을 맡게 하였다.

문 6.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 가운데 일체의 만물이 다 들어 있고, 만물 속에는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가 곧 일체의 만물이고, 만물은 곧 하나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한 작은 티끌 속에서 시방(十方)이 있는 것이요, 한 찰나가 곧 영원이다.

- 화엄일승법계도 -

- ① 화엄경소를 저술하였고,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② 왕자 출신으로 승려가 되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 ③ 화엄종을 개창하여 통일 직후 신라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중시하였다.

6. 정답 : ③

- 의상은 화엄사상의 요지를 시(詩)로 축약한 『화엄일승법계도』를 편찬하였다.
- ③ 의상의 화엄종은 업설에 바탕을 둔 왕즉불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① 『화엄경소』는 원효가 『화엄경』에 주석을 단 책으로, 원효는 서방 극락 정토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정토 신앙을 전도하며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 ② 고려 문종의 아들로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해동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은 의천이다.
 - ④ 지눌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 수행, 노동을 통하여 선과 교학이 들이 아니라 는 사상인 '정혜쌍수'와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문 7. 다음 상황이 나타났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고종 42년 3월, 여러 도의 고을이 난리를 겪어 황폐해지고 지쳐 조세, 공부, 요역 이외의 잡세를 면제하고, 산성과 섬에 들어갔던 자를 모두 나오게 하였다. 그 때 산성에 들어갔던 백성은 굶주려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노약자의 시신이 골을 메웠다.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잡아매어 놓고 가는 자가 있었다.

- ① 거란이 고구려 옛 땅 반환을 요구하며 전쟁을 벌였다.
- ② 홍건적이 고려를 침략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피난하였다.
- ③ 몽골이 고려를 방문한 사신이 피살됨을 구실로 침략하였다.
- ④ 부족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오며 고려와 충돌하였다.

7. 정답 : ③

해당 자료는 고려 고종 때 몽골과의 항쟁으로 고려인들의 피폐한 삶을 보여준다.
③ 몽골은 고려에 왔던 동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하던 길에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국교가 단절되었고, 이후 몽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① 거란은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과 송파의 교류를 단절하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손녕을 앞세워 80만의 군대로 침입해 왔다.
② 공민왕 때 원의 쇠퇴를 틈타 일어난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 까지 피난하였다.
④ 12세기 초 북만주 완옌부의 추장 우야소가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에 복속하고 있는 여진부락을 공격하여 정주관까지 남하하면서 고려와 충돌하였다.

문. 8 (가)~(라)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정전시과	(나) 개정전시과
(다) 경정전시과	(라) 과전법

- ① (가)는 관직의 고하만이 아니라 인품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
- ② (나)는 관품의 고하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 ③ (다)는 (나)에 비해 지급액이 감소하고 무신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다.
- ④ (나), (다), (라)는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8. 정답 : ④

④ 개정전시과와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경정전시과는 현직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① 시정전시과는 관등의 고하와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여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② 인품이 기준에서 배제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의 고하만을 고려하여 수조지가 분급되

었다.

③ 개정전시과에 비해 토지분급량이 더욱 축소되면서 15파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고,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직역이 고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문 9.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 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방법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도의 감사에게 주현의 나이든 농부들을 방문하게 하여, 농토의 이미 시험한 증험에 따라 내용을 갖추게 하고 …… 그 증복된 것을 버리고 간추린 것만 뽑아서 둑어 책을 만들고 제목을 ‘이 책’이라고 하였다. 농사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섞지 않고 바르게 써서 백성들에게도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
……

- ① 세종 때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 저술하였다.
- ②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편찬하였다.
- ③ 우리 현실과 풍토에 맞는 농법이 요구됨에 따라 간행하였다.
- ④ 뭇자리에서 모를 읊겨 심는 방법 등 다양한 농법이 소개되었다.

9. 정답 : ②

해당 자료는 조선 세종 때 정초와 변효문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농사직설』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책이다.

② 『농사직설』은 정부에서 편찬하여 각 도의 감사에게 지급하여 권농관(勸農官)의 지침이 되었던 책으로, 한문으로 편찬하였다.

① 중국과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각지의 농민들에게 물어 경험담을 모아 저술하였다.

③ 기존의 농서는 중국의 것으로 중국과의 풍토가 달라 농사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저술하였다.

④ 『농사직설』에는 논에 벼씨를 뿌려 그대로 키우는 직파법, 밭벼식으로 파종하여 키우다가 장마 이후로는 물을 담은 채 논벼로 기르는 건답법, 뭇자리에서 키운 벼의 모를 논에 읊겨 심어 재배하는 이식법인 묘종법 등이 소개되었다.

문 1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톡토르(脫朵兒)가 며느릿감을 구하는데 반드시 재상 가문 출신이라야 된다 하니, 여자가 있는 집은 두려워하며 다투어 사위를 들였다. 국가에서 재상 두 세집을 기록하여 톡토르에게 택하게 하니, 자색이 있는 김련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였다. 김련의 집에서는 이미 예서(預婿)를 들여놓고 있었는데, 그 사위가 두려워하여 처가에서 나가버렸다. 김련이 당시 입조하여 돌아오지 않았기에 집에서는 김련이 귀국한 후 혼례를 치르자 하였으나 톡토르가 듣지 않았다.

- 고려사 세가 권제27, 원종 12년 2월 -

- ① 12세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 ② 톡토르는 고려에서 재상의 지위에 올랐을 것이다.
- ③ 이 시대에 솔서혼, 남귀여가혼이 있었을 것이다.
- ④ 이 시기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을 것이다.

10. 정답 : ③

- 해당 자료는 원간섭기의 내용으로 톡토르(脫朵兒)는 다루가치로 파견된 사람이다.
③ 고려시대에는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생활하는 솔서혼,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혼인형태인 남귀여가혼이 적지 않았다.
① 해당 자료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중반까지의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다루가치는 감찰관으로 조세 징수와 내정을 간섭하였고, 원간섭기 고려의 재상(문하시중)은 친원파인 권문세족이 차지하였다.
④ 『삼국사기』는 문벌귀족 시기인 인종 때 왕의 명으로 김부식이 편찬하였다. 이 시기에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문 11. 조선 후기 농업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남부 지방에 이앙법이라는 새로운 농법이 전래되었다.
- ② 밭농사에서 밭의 고랑에 과종하는 방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 ③ 농업기술의 발달로 벼농사에서 공동 노동 관행이 약화되었다.
- ④ 수확의 일정 비율을 소작료(지대)로 내는 타조법이 등장하였다.

11. 정답 : ②

- ② 견종법에 대한 내용이다. 견종법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이랑과 이랑 사이는 물이 배수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별달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기장이나 보리와 같은 겨울 작물들을 고랑에 과종하기 시작했다. 고랑에는 작물이 겨울을 지나는 사이 열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육 환경이 마련되었고,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는 보습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어서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① 이앙법이 최초로 시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고려 후기였던 14세기 후반에도 존재했음을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동 노동은 고대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해온 습속이다. 우리나라의 공동 노동에서는 두레라는 조직이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왔으며, 두레 조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공동 노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노동의 집약화가 이루어지고 강도 높은 집단 공동 노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확산되었다.

④ 조선 후기에는 정액 지대인 도조법이 새로운 지대 납부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도 일반적인 지대 납부 방식은 여전히 정률 지대인 타조법이었다.

문 12. 밑줄 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우의정 (가)이/가 말했다. “이 법은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道)에 두루 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전과 관동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양호(兩湖)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보기>

- ㄱ. 동전 유통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ㄴ. 기사환국으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ㄷ. 새로운 역법 도입을 건의하였다.
- ㄹ. 기해예송에서 자의대비가 1년 복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2.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가) 인물은 ‘김육’(1580~1658)이다.

ㄱ, ㄷ. 김육은 인조반정 이후 벼슬에 올랐으며 이괄의 난 때는 왕의 피란길을 도와 공을 세우기도 했다.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하여 충청도에서 이를 시행하게 했으며,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을 구상하였다. 또한 화폐의 주조와 유통, 수레의 제조·보급에 힘썼으며, 시헌력을 채택해 시행하기에 노력하였다.

ㄴ. 숙종 대 남인이 정권을 잡은 기사환국은 168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김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ㄹ. 1차 예송인 기해예송은 현종 즉위년인 165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김육과는 관련이 없다.

문 13.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장단 적소에 있을 때 면포 상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가)의 효과라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귀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에 대한 채제공의 평가, 승정원일기 -

① 균역법 ② 대동법 ③ 호포법 ④ 신해통공

13.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채제공’, ‘면포 가격의 안정’ 등을 통해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이전보다 자유롭게 상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 신해통공임을 알 수 있다.

④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 신해년에 이루어진 통공책으로 난전의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하고 시장의 독점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① 균역법은 영조 대 군역의 문란을 혁파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일반 양민을 대상으로 1년에 2필씩 부과하던 군포를 1필로 경감해 준 제도였다.

② 대동법은 광해군 대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실시한 제도로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는 양반들의 반대를 야기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여년이 소요되었다.

③ 호포법은 고종 대 흥선대원군이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해당한다.

문 14. 밀줄 친 ‘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한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1760년 1월부터 1910년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 필사본이며, 총 2,329책이다. (가)왕이 세손 시절에 쓴 개인 일기에서 비롯되어 왕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 ① 화폐유통을 위해 최초로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다.
- ② 중·하급 관리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 ③ 청과 북방경계선을 확정지어 백두산 아래 정계비를 세웠다.
-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균역법을 처음 시행하였다.

14.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밀줄 친 ‘이 책’은 『일성록』이다.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 시절 자신을 반성할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국가 정무가 늘어나고 규장각의 체제가 정비되자 1781년(정조 5)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쓴 일기를 규장각 신하들에게 대신 기록할 것을 명하였다. 이로써 국정 운영에 참고하고 국정 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국가의 일기로 발전시켰다. 정조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한 『일성록』은 1910년 일제 강점 이전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었다.

② 정조는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자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통상 37세 이하 과거급제자가 선발되었으며 초계문신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작용했다.

① 상평통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633년(인조 11)이었다. 즉, 인조 때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숙종 때는 이를 법화로 채택하여 널리 유통시켰다.

③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1712)은 숙종 대의 사실이다.

④ 균역법(1750, 영조 26)은 영조 대 군역의 문란을 혁파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일반 양민을 대상으로 1년에 2필씩 부과하던 군포를 1필로 경감해 준 제도였다.

문 15. 밑줄 친 ‘제2차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차 개혁 시기에는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고종의 권력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고종은 크게 분노하여 “대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체를 바꾸어 새로 공화 정치를 만들든지, 또는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

- 주한 일본 공사관기록 -

- 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 ② 종두법과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 ③ 8도의 행정 구역을 23부로 개편하였다.
- ④ 대한국 국체를 발표하였다.

15. 정답 : ③

제2차 갑오개혁 시기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동학 농민군을 대파시킨 뒤 일본의 내무대신이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한 일본 공사로 임명하고 조선을 보호국화하려고 시도하려 하였다. 이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를 불러들임으로써,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다(1894. 10. 19). 아울러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 강령 20개조를 제시하고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는 등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여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 ③ 제2차 갑오개혁 때 지방 8도는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 ① 3조를 8아문으로 개편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대의 사실이다.
- ② 종두법과 단발령 실시는 을미개혁 때의 사실이다.
- ④ 대한국 국체의 발표(1899)는 광무개혁 대의 사실이다.

문 16. 다음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그런데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조선이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방책도 될 것이다.

- ① 황준현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친중국·결일본·연미방의 방책을 제시하였다.
- ②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③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의 간섭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 ④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고, 일본군이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16.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유길준의 중립화론(1885)에 대한 내용이다. 유길준은 미국 유학 중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소환 명령을 받고 귀국하자마자 유폐되었다. 그의 「중립론」은 이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담을 느낀 조선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하자 영국이 이에 반발하여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긴장 관계가 조성되자 유길준은 조선의 안전이 어느 특정한 강대국의 보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선의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① 황준현(황준센)의 『조선책략』(1880)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로 간 김홍집이 당시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준현이 동아시아의 정세 및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황준현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邦)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③ 1895년 러시아가 중심이 된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후퇴하자, 조선 국내에서는 친러 세력이 새롭게 대두하였다.

④ 1894년 동학 농민 전쟁 상황 당시의 내용이다. 동학 농민군에 의해 전주성이 점령된 이후 청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 파병을 결정하였다(4. 29). 이에 따라 2,400여 명의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였다(5. 5). 청이 조선에 파병하자 텐진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였다(1차 : 5. 7 / 2차 : 5. 9).

문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희 황제가 삼보(三寶: 토지·인민·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동안에 한 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 ① 3·1 운동 직후에 작성되었다.
- ②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③ 공화주의 사상이 표방되어 있다.
- ④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이 발표하였다.

17.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917년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이다.

①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 작성되었다.
②, ③, ④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신한 혁명당식 외교 노선에 한계가 드러나자 신규식, 조소앙, 박은식, 신채호 등 대종교, 동제사, 신한 혁명당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황제권을 포기하고 국민 주권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단결 선언을 제창하였다.

문 18. 밑줄 친 (가)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소비 절약과 가계부 적기 등의 자력 생생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특히 농가 생생 계획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춘궁 농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채를 근절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일 전쟁 이후 (가)의 중점이 전시 농산물 확보로 옮겨가면서 농가 생생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 ①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②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이 출간되었다.
- ③ 나운규가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하였다.
- ④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18.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가) 정책은 '농촌진흥 운동'(1932~1936)이다.

- ①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1936년의 사실이다.
- ②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의 사후에 출판된 유고시집으로, 1941년에 19편이 완성되어 시집으로 펴내려던 것을 일제의 검열을 우려하여 이루지 못하고 해방 이후인 1948년 간행되었다.
- ③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제작은 1926년의 사실이다.
- ④ 방정환의 어린이날 제정은 1922년의 사실이다.

문 19. 무장 독립 전쟁을 수행한 단체와 그 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

- ① 한국 독립군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② 한국 광복군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③ 조선 혁명군 - 1938년 민족 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④ 조선 의용대 - 1940년에 창설되어 대일선전포고와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하였다.

19. 정답 : ①

- ① 혁신의회 산하의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1932), 대전자령 전투(1933) 등에서 일·만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 ② 조선혁명군에 대한 내용으로 총사령관 양세봉을 중심으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 ③ 조선 의용대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 의용대는 1938년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김원봉에 의해 조직된 무장 단체로 조선 민족 혁명당의 직할부대로 조직되었으며, 1942년 조선 의용대의 일부(충칭 본대)는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 ④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이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은 1941년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하였으며, 중국 주둔 미국전략정보국(OSS)과 협작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문 20. (가), (나) 자료가 작성되었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은?

(가) 조선에 주재한 미·소 양국 군 사령관은 2주 이내에 회담을 개최, 양국의 공동 위원회를 설치 조선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원조한다. 또 4국에 의한 신탁 통치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 임시 정부를 수립케 하여 조선의 장래 독립에 대비할 터인바 신탁 통치 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한다.



(나) 5일의 59차 회의 아래 계속하여 회의를 휴회하고 있는 이 회의는 기간 주야회의의 성과도 없이 공동 보고서 작성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또다시 침묵 상태에 빠져 있는데, 10일에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의 회의 여하도 관측하기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사람
- ② UN 한국 임시 위원단을 환영하는 인파
- ③ 남북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38선을 넘는 김구 일행
- ④ 북위 38도선 이남에서의 군정 실시를 선포하는 미군

2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 (가)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 회의, (나)는 1947년 9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의 발표는 1946년 10월의 사실이다.
- ② UN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여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단은 총선거 실시를 위한 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1월 24일 소련은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다.
- ③ 김구의 남북협상과 관련한 남북 지도자 회의는 1948년 4월에 전개되었다.
- ④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미군정 실시 선포는 1945년 9월 9일의 사실이다.